

전남지역 야적시위 벼 350t 어찌하오리까

농민단체, 쌀값 보장·수매제 시위 이후 3개월간 방치 작년 풍작으로 RPC도 매입 꺼려... 벼 관리비 등 골머리

농민들이 지난해 '쌀 목표가격 23만원 보장'을 요구하며 전남도청과 일선 시·군청 앞에 쌓아놓은 벼가 3개월여 지나면서 해당 지자체들이 처리 방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남도청을 비롯한 전남지역 지자체 앞에 이렇게 쌓인 벼가 350t에 달하는데다 시간이 갈수록 미질이 떨어지고, 비나 눈이 오면 쪼티 않도록 일선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관리하는데도 애를 먹고 있다.

갈수록 미질이 떨어지고 있지만 부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다. 통상 벼 야적 시위가 길어지면 지자체가 미곡처리장(RPC)이나 도매상과 농민단체를 연계해 벼를 처리했지만, 지난해 풍작으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시중에 쌀이 많이 풀리다 보니 RPC 등이 오랜 시간 길거리에 방치돼 있는 벼 구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예전에는 공공비축미 계획보다 적게 매입한 타지역의 배분량을 가져와 매입하는 방식도 있었지만, 올해는 전국 지자체가 풍년으로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량을 대부분 채워야 방법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벼 관리에도 애를 먹고 있다. 전남도청은 실무 부서의 운영비 300만원을 들이쳐 비닐을 구입, 습기가 차지 않도록 2중 포장을 했다.

일부 지자체는 "쌀 목표가격 등은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도나 시·군이 벼 매입을 우선하거나 도



지난해 농민들이 야적 시위를 위해 일선 지자체 앞에 쌓아 놓은 벼 350t이 3개월여 동안 방치되고 있어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농민들이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앞 광장에 벼 가마를 쌓아올리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와주기 때문에 해마다 벼 야적 시위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판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청과 군청 앞에 벼를 쌓고 항의하는 농민들을 모른척할 수도 없

어 지자체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국평균 상속재산 9200만원 광주 5300만·전남 3700만원

서울 2억원과 대조

한국 국민의 평균 상속 재산은 1억 원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수도권은 평균 상속 재산이 2억원에 육박한 반면, 광주는 5300만원, 전남은 가장 적은 3700만원으로 지역별 편차도 컸다.

15일 국세청의 '과세 유형별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속세가 확정된 피상속인(사망자) 28만7000명의 총 상속재산은 26조 5374억원이다.

27만7000명이 29조2537억원의 재산을 상속했던 것으로 집계됐던 2011년 보다는 다소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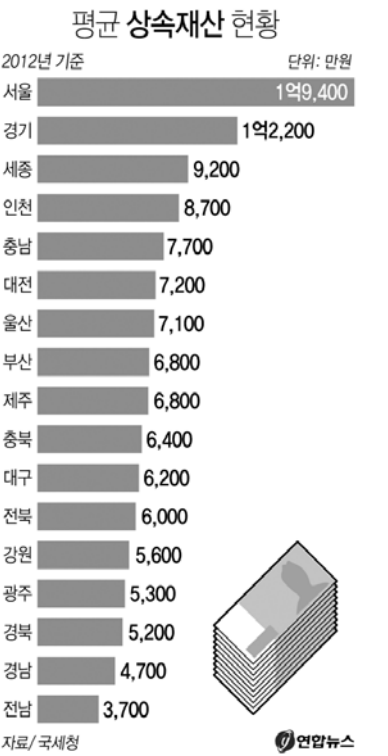
2012년의 평균 상속재산은 9200만원이었으나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서울이 1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1억22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종시(9200만원), 인천(8700만원) 충남(7700만원)도 평균 상속재산이 상위권에 들었지만, 전남(3700만원), 경북(4700만원) 등은 금액이 적었다.

상속재산 규모로는 1억원 이하가 23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상속재산이 500억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도 7명이나 됐다. 이들의 총 재산가액은 1조399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998억5000만원에 달했다.

상속재산이 100억원~500억원인 피상속인도 92명이나 됐고, 50억~100억원도 185명에 달했다.

28만7000명의 피상속인 가운데 대상자는 6천201명이었다. 이들의 총 상속재산은 11조2296억원



이었고 부과된 상속세(결정세액)는 1조7659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18억1000만원이었고, 평균 상속세는 2억8500만원이었다.

과세미달자는 28만명에서 총 상속재산은 15조3078억원이었다. 이들의 평균 상속 재산은 5400만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결정 세액은 조사 등의 과정을 거치는 만큼 상속세 신고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며 "상속세의 경우 국세청에서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은 물론 미신고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 만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예비 농어업인 보증 지원... 가공유통은 확대 농수산신보기금, 1972년 설립 이후 전면적 제도 개선

예비 농어업인에 대한 창업 지원이 이뤄지고 우수 농림어업자나 농업 법인, 농수산식품 가공·유통업 분야에 대한 보증 우대나 지원도 확대된다. 이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1972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데 따른 것이다.

2010년부터 운영된 농식품부 모태펀드 투자 농림수산물 기업에 대한 보증 한도도 우대폭(15억→30억, 보증료율 0.2%포인트 인하)을 확대하고, 피보증업체에 대한 지원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농어촌 다문화 가정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자 이들에 대한 보증 비율도 확대(85→95%)하고, 보증료는 인하(1억원 이하 0.3→0.1%)하기로 했다. 신용 우수 농어업인에 대한 보증료율을 0.1~0.2% 내리고, 신용회복을 통한 재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업업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 보증 한도 비율을 완화(20→40%)하고, 법인 보증료율은 0.7~1.4%에서 0.2%포인트 인하한다.

대형 농어업 경영체에 대한 보증 한도도 개인(10억→15억)과 법인(15억→50억원) 모두 늘린다.

정부는 법 개정과 농신보 기금운영심의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2월부터 이런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삼성그룹, 대학총장에 인재 추천권 부여

신입사원 채용제도 전면 개편... 연중 수시 채용 서류전형 19년만에 도입... 적성검사 의존도 낮춰

삼성그룹은 15일 신입사원 채용제도를 전면 개편해 전국 200개 4년제 대학의 총·학장에게 인재 추천권을 부여하고 연중 수시로 지원자를 발굴하기로 했다.

삼성 이르면 이달 말이나 2월 초부터 수시 지원 시스템을 개설, 연중 채용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 1995년 열린 채용 체제로 전환하면서 폐지한 서류전형을 19년 만에 다시 도입해 이미 사교육 시장이 형성된 삼성직무적성검사(SSAT)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방침이다.

삼성엔 매년 4월과 10월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의 기본 틀과 전체 채용인원에서 지방대 출신 35%, 저소득층 5%의 비중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용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열린 채용과 기회균등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며 "입사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고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개편안"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엔 '찾아가는 열린 채용'을 도입, 현장에서 우수 인재를 찾아 수시로 지원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열린 채용은 지역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30개 안팎 대학을 연중 방문해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또 총·학장 추천제로 5000명 가량 인재를 발굴할 예정이다.

대학별 채용인원 배정은 해당 대학의 삼성 입사 실적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박용기 삼성전자 인사팀장(전무)은 "찾아가는 열린 채용과 총·학장 추천제로 발굴된 인재에게는 서류전형을 면제한다"며 "물론 추천을 받았더라도 SSAT에서 떨어지면 탈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엔 이들 외에 다른 지원자들은 서류전형을 통해 입체적으로 준비된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따라서 향후 삼성그룹 계열사 입사 절차는 '찾아가는 열린 채용 발굴 또는 대학 총·학장 추천→SSAT 응시→면접', '서류전형→SSAT 응시→면접'으로 바뀐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제 131228-총-52297호

老安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노안교정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랑즈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한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가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 1899-3975 H.P 010-3598-7080